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 분석⁺

- 의류학 분야를 중심으로 -

강민정 · 조진숙*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석사과정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nalysis of Previous Study of Traditional Pattern

- Focused on Textile & Clothing related Part -

Kang Minjung · Cho Jeansuk*

M.A. Course,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search trends and the design processes” of the traditional patterns by examining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patterns. For this purpose, 96 studies which include master's and doctoral theses and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8 Korean academic journals on Clothing from 2000 to 2010 were chose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pattern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ubject matter, they were classified into: research on clothing design, research on textile design, research on the design of cultural commodities, and research on mixed design. Second, the researches that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ubject matter were re-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year of publication. It was shown that the most active research was on the clothing design. The research on textile design, when compared with clothing design, alternated an increase and an decrease in every other year. Also, research on the design of cultural commodities were fewer than the research on clothing design or textile design although it is on the increase from 2008. Third, wh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s of design, it was found that the designs based on a flora were most common. Fourth, in most cases, in the process of the designs, the designs

⁺ 이 연구는 2011년 경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were dispensed with the original form or were simplified. The choice of the tone of color, in most cases, were based on the concept selected by the designer. The most common method for the expression of the designs was based on the printing. Also, when it came to the presentation of the designs, the original work greatly outnumbered an imaginary work.

Based on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ere will be more active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designs which, in turn, can popularize the aesthetic beauty of Korea.

Key Words : previous study(기존연구) traditional pattern(전통문양), research trend (연구경향), design processes(디자인 과정)

1. 서론

21세기는 문화가 세계적인 경쟁력의 기초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자국민의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¹⁾ 그것은 현대사회가 정보화, 개방화 시대로 문화와 생활양식이 범세계적으로 일원화되었으며 자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적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²⁾ 최근 이상봉, 문영희, 이영희를 비롯하여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생각아래 전통미의 계승을 통한 한국의 국제화라는 주제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자체가 우리의 삶과 사회 산업을 좌우하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문양은 다양한 전통문화 중 하나로서 언어나 문자와 마찬가지로 한 민족의 미의식이나 생활정서를 반영한 독특한 요소로서 민족과 그들이 살아온 자연, 생활환경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전통문양에는 민족의 생활정서와 감정이 나타나 있으므로 민족만의 상징성과 특색을 지니고 있다.³⁾ 우리나라에도 미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전통문양이 있으며 종류로는 식물문양, 동물문양, 자연문양, 기하문양, 수복어문양 등이 있고 상징하는 의미 또한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문양은 형태적 측면에서도 차별화 된

조형미를 나타내며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현대적 디자인과도 접목시켜 다채롭게 활용 할 수 있다. 전통문양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정진순은 현대사회는 문화전쟁의 시대로 자국문화의 우수성을 상품화하여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문화적으로도 우월함을 과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옛날만큼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전통문화를 단지 '낡은 관념과 그것에 얽힌 문화'라고 단정지어버리며 그보다 서양문화나 선진국의 문물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편화 되어있다⁴⁾고 하였다. 전통은 뿌리와도 같아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문화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통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현대적인 생활공간에 알맞게 끌어내어 새로운 창작을 해나가야⁵⁾ 할 것으로 본다. 김종순, 장정대는 전통문화가 가진 무한한 가치는 더 이상 논할 수 없을 만큼 그 영향력이 크며 자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품으로 재탄생 될 경우 눈에 보이는 이익 뿐 아니라 여러 영역까지 파급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⁶⁾고 하였다. 이렇게 산업 사회에서 국제적 경쟁력의 원천으로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전통문양 활용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강조할 만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모색된 반면 좀 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연구경향이나 실태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양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연구논문과 석·박사 논문 96편을 대상으로 연구의 경향과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한국적 문양을 디자인 발상의 모티브로 하여 세계화를 향한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 관련분야에서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의류학 분류기준은 이유리, 이미영⁷⁾의 연구에서 제시한 의류학 분류기준을 참조로 하였다.

1. 연구 문제

첫째, 의류학 관련분야에서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연구유형을 분류하며, 분류된 연구유형은 주제에 따라 어떤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연도별 재분류를 통해서 기존연구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기존연구들의 분석을 통해서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는 문양 종류를 분석한다. 그리고 문양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발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양의 형태 선정, 문양의 색채 배색, 문양의 표현기법을 분석한다.

셋째, 기존연구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전통문양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2. 자료 수집

현대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대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전통과 정체성이 담긴 문화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산업의 개발 및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문화상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류학 관련분야에서도 전통문양과 관련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로서 전통문양

활용에 관한 연구경향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기존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수집 범위는 2000년 이전에는 전통문양 활용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하였으므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선정한 등재학술지인 한국의류학회지와 복식, 복식문화연구, 패션비즈니스,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한국디자인포럼,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등 8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소장된 석·박사 논문을 통해 연구제목이나 키워드에서 전통문양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는 논문 총 96편을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는 본 연구자 외에 의류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3인이 참여하였다.

3. 분석 방법

문헌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된 분석 자료는 연구주제별 유형분석, 연구주제에 따른 연도별 변화, 모티브로 활용되는 문양 종류, 문양의 디자인 발상과정, 디자인 제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백경진, 김미영⁸⁾의 연구를 참조로 하였다.

각 논문의 연구주제에 관한 유형 분류는 논문제목과 주된 연구변인을 기준으로 하여 의상디자인, 직물디자인, 기타 상품디자인으로 분류하였으나 직물을 디자인한 후, 의상이나 스카프, 손수건 등으로 디자인하는 등 2가지 주제 이상을 동시에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복합 디자인이라는 명칭으로 분류 주제에 추가하였다. 분류된 연구유형은 주제별로 디자인을 분석하였고, 주제에 따른 연도별 재분류를 통해서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되는 문양 종류는 김미영, 김경희⁹⁾, 현선희, 백수정¹⁰⁾의 연구를 참조로 하여 문양을 자연문, 동물문, 식물문, 기하문, 수복어문 등 5종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문양의 디자인 발상 과정은 전중자, 조진숙¹¹⁾, 이수정¹²⁾의 연구를 참조로 하여 문양의 형태 선정, 문양의 색채 배색, 문양의 표현기법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디자인 제시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결과물 제시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의 통계처리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III.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 유형 분석

1.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연구주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유형에 사용된 명칭은 연구주제에 따라 분류된 항목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 직물디자인에 관한 연구,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연구로 분류되었으며, 의상디자인+기타 상품디자인, 직물디자인+의상디자인, 직물디자인+기타 상품디자인 등 2개 이상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명칭을 복합디자인으로 명명하여 분류에 추가하였다. 기존연구에서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한국단청의 꽃문양을 응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¹³⁾에서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전통 창살문양을 응용한 복식디자인’¹⁴⁾에서 원피스 디자인을, ‘고려청자의 당초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¹⁵⁾에서 코트 디자인을 제시하는 등 총 45편이었다. 직물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민화의 현대적 재구성을 통한 디지털 섬유패션제품디자인 연구’¹⁶⁾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직물디자인을, ‘한국의 미의식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한 직물디자인 연구 - 떡살문양을 응용한 식탁보 디자인-’¹⁷⁾에서 컴퓨터 직기로 직물 제작을, 고구려 고분벽화의 연꽃문양을 응용한 직물디자인¹⁸⁾ 연구에서 직조를 통한 직물디자인을 제시하는 등 총 29편이었다.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한국 전통문양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연구’¹⁹⁾에서 넥타이, 스카프 디자인을, ‘당초문양을 응용한 현대 패션 구두디자인 연구’²⁰⁾에서 구두 디자인을, ‘사찰 건축의 창살문양을 응용한 액세서리 디자인 연구’²¹⁾에서 가방과 모자 디자인을 제시하는 등 총 15편이었다. 복합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조선시대 규방 침선소품 문양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에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통해 주방용품 디자인을, ‘조선시대 보자기 문양을 활용한 디지털 텍스타일프린팅 제품디자인 연구’에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통해 홈인테리어용품 디자인을 제시하는 등 총 7편이었다. 분석결

과는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직물디자인에 관한 연구(30.2%),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연구(15.6%), 복합디자인에 관한 연구(7.3%)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이와 같이 의류학 관련분야에서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연구주제는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가지 이상의 복합적 주제로 디자인하는 연구보다는 단일 연구주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의 유형 분석**

연구 주제	빈도	%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	45	46.9
직물디자인에 관한 연구	29	30.2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연구	15	15.6
복합디자인에 관한 연구	7	7.3
합계	96	100

연구주제별 디자인을 살펴보면,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의상디자인은 정장류가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니트웨어(12.7%), 케쥬얼(9.0%), 웨딩드레스(7.3%), 유니폼(5.6%), 속옷(1.8%), 수영복(1.8%), 생활한복(1.8%), 모피류(1.8%)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이와 같이 의상디자인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의상 디자인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원피스, 투피스, 코트 등의 정장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상품 디자인은 스카프, 넥타이, 가방 등 패션소품이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식탁보, 테이블 매트 등의 주방용품(11.9%), 쿠션, 커튼 등의 인테리어용품(10.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나타난 패션소품 디자인을 살펴보면, 스카프가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넥타이(20.0%), 가방류(16.6%), 손수건(5.0%), 모자(5.0%), 구두(3.3%), 손거울(1.7%), 부채(1.7%), 벨트(1.7%) 순으로 나타났다. 주방용품에서는 식탁보, 테이블매트, 주방타

<표 2> 의상디자인에 관한 기존연구에 나타난 의상디자인

의상디자인	빈도	%
정장류(원피스, 투피스, 코트)	32	58.2
캐주얼 웨어(셔츠, 티셔츠, 조끼)	5	9.0
웨딩드레스	4	7.3
니트웨어	7	12.7
유니폼(호텔, 요식업, 교복)	3	5.6
속옷(브래지어)	1	1.8
수영복	1	1.8
생활한복	1	1.8
모피류(코트)	1	1.8
합계	55	100.0

<표 3>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기존연구에 나타난 상품 디자인

상품 유형	상품종류	빈도	%
패션소품 (47개, 78.1%)	넥타이	12	20.0
	스카프	14	23.1
	가방류	10	16.6
	구두	2	3.3
	손수건	3	5.0
	모자	3	5.0
	손거울	1	1.7
	부채	1	1.7
	벨트	1	1.7
주방용품 (7개, 11.9%)	식탁보	1	1.7
	테이블매트	1	1.7
	주방타올	1	1.7
	냄비받침	1	1.7
	주방장갑	1	1.7
	컵받침	1	1.7
	앞치마	1	1.7
인테리어용품 (6개, 10.0%)	쿠션	2	3.3
	커튼	1	1.7
	발	1	1.7
	액자	2	3.3
합계		60	100.0

을, 냄비받침, 주방장갑, 컵받침, 앞치마 등이 각각 1.7%로 균일하게 나타났다. 인테리어용품에서는 쿠션과 액자가 각각 2%로 커튼(1.7%)이나 발(1.7%)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

이와 같이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패션과 관련된 패션소품이 주방용품이나 인테리어용품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패션 소품에서는 스카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의류학 분야에서 전통문양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연구주제는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기존연구들은 연구주제가 주로 의상디자인 분야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타 상품디자인의 경우, 의상디자인이나 직물디자인에 비해 규모가 작아 소비성이 좋고 실생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다. 박우미, 나우정은 '전통문양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요식업계의 유니폼 및 소품 디자인 개발'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광 숙박, 요식업계의 유니폼이나 식탁보, 냅킨, 앞치마 등 관련 소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²²⁾고 하였다. 이처럼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숙박, 요식업계의 실내인테리어용품 및 주방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품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2. 연대별 분석

연대별 분석을 통해서 시대에 따른 연구경향을 살펴보고자 연구주제에 따라 분류된 96편의 논문을 연대별로 재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상디자인에 관한 기존연구는 2004년도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2001년도와 2003년도에 가장 적게 연구되었다. 연대별 변화에 있어서 연구의 점진적 증가나 감소보다는 연구량의 많고 적음이 한해씩 엇갈려 나타났다. 2010년 현재,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물디자인에 관한 기존연구는 2005년도에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2000년과 2004년도에 가장 적게 연구되었다. 연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연구량의 많고 적음이 한해씩 엇갈려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점은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

구가 높게 나타난 해에는 직물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적게 나타나고, 직물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높게 나타난 해에는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적게 나타나는 등 서로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2010년 현재, 직물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의상디자인이나 직물디자인에 비해 매우 적게 연구되었으나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디자인에 관한 연구도 2008년부터 증가하다가 2010년에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상과 같이 연대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0년대의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2010년 현재,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와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직물디자인에 관한 연구와 복합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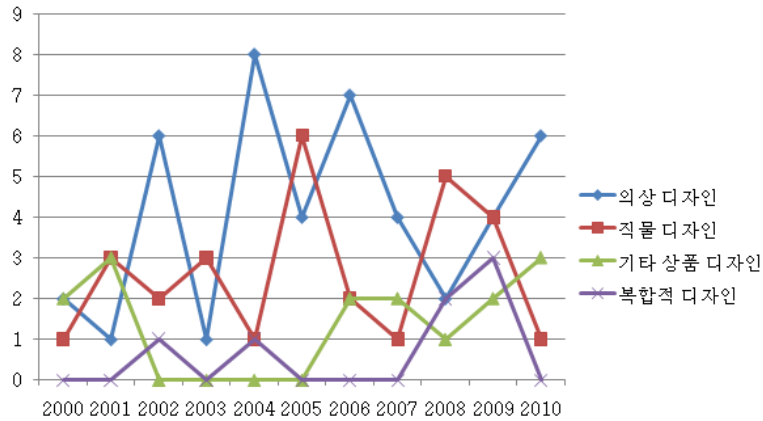
3. 모티브로 활용된 문양 분석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모티브로 활용된 문양 종류를 분석하였다. 문양 종류는 앞서 분석방법에서 제시한바 있는 선행연구를 참조로 하여 자연문, 동물문, 식물문, 기하문, 수복어문 등 5종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표 5>. 자연문은 구름, 해, 달, 물, 산, 바위 등 자연을 상징하는 문양이고, 동물문은 용, 봉황, 학, 나비, 호랑이, 박쥐, 원앙 등 동물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식물문은 연화, 매화, 난초, 국화, 모란, 대나무, 석류, 복숭아 등 꽃, 나무, 과일을 상징하는 문양이고, 기하문은 기하학적인 점, 선, 면 등 회화적 요소가 배제된 문양으로 삼각문양, 사각문양, 번개문양, 방사선문양, 톱니문양, 원 문양, 타원 문양, 동심원 문양, 소용돌이 문양 등이 있다. 수복어문은 한자로 壽, 福, 囍 등 길상 어문을 상징한다.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모티브로 활용된 문양을 분석한 결과, 식물문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기하문(18.2%), 동물문(15.1%), 수복어문(4.7%), 자연문(3.7%) 순으로 나

<표 4> 연구주제에 따른 기존 연구들의 연대별 분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의상 디자인	2	1	6	1	8	4	7	4	2	4	6	45
직물 디자인	1	3	2	3	1	6	2	1	5	4	1	29
기타 상품 디자인	2	3	0	0	0	0	2	2	1	2	3	15
복합 디자인	0	0	1	0	1	0	0	0	2	3	0	7
합계	5	7	9	4	10	10	11	7	10	13	10	96



<그림 1> 기존 연구들의 연대별 변화

<표 5> 문양 분류

문양 분류	종류
자연문	구름, 해, 달, 물, 산, 바위 등 자연을 상징
동물문	용, 봉황, 학, 나비, 호랑이, 박쥐, 원앙, 사슴, 잉어, 거북이 등 동물을 상징
식물문	연화, 매화, 난초, 국화, 모란, 대나무, 당초, 석류, 복숭아 등 꽃과 나무, 과일을 상징
기하문	삼각문양, 사각문양, 번개문양, 방사선문양, 톱니문양, 원 문양, 타원문양, 동심원문양, 소용돌이 문양 등 회화적 요소 배제
수복어문	壽, 福, 囍 등 길상어문 상징

타났다<표 6>.

가장 높게 나타난 식물문의 종류를 살펴보면 연화

문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꽃문(23.1%), 당초문(14.3%), 모란문(9.8%), 매화문

(5.4%), 보상화문(5.4%), 사군자문(4.4%), 석류문(2.7%), 국화문(2.7%)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이와 같이 전통문양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된 문양은 식물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물문은 연화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화문은 연꽃 문양을 말하며 생명의 창조, 번영 등 길상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꽃문은 어느 한 종류의 꽃 문양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꽃문양을 사용한 문양이며 당초문은 상상의 초화인 당초의 줄기와 덩굴에 의해 뻗어나가는 형태로 도안화한 문양이다.²³⁾ 보상화는 공상적인 화문으로 불교용어에서 기원한 것이다.²⁴⁾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된 문양으로 식물문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식물문이 꽃과 나무, 과일을 상징하는 문양으로서 형태가 아름다운 것은 물론 현대에서도 친숙하며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생각된다. 구세이는 국제화시대에 요구되어지는 한국적 디자인을 하기 위하여 전통태극문양을 활용하여 Cap을 디자인한 결과 전통태극문양은 기하학적인 간결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 현대적 감각을 나타내므로 실용적인 Cap 디자인의 모티브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²⁵⁾고 하였다. 이처럼 기하문의 경우도 문양이 단순하고 모던하여 다른 문양보다 현대적인 재해석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동물문이나 자연문, 수복어문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연구 분석결과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되는 문양은 주로 식물문이나 기하문, 동물문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문양은 활용방법에 따라 현대적 감각의 독창적인 모티브로 전개할 수 있는 무한한 디자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문, 수복어문 등도 다양한 발상방법으로 개발되어 우리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내재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활용되었으면 한다.

<표 7> 기존연구에 나타난 식물문양 분석

문양종류	연화문	꽃문	당초문	매화문	사군자	석류	보상화	모란	국화	합계
빈도	36	26	16	6	5	3	6	11	3	112
%	32.1	23.2	14.3	5.4	4.4	2.7	5.4	9.8	2.7	100

* 작품에 표현된 문양이 두 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 작품 당 2점을 기준으로 하였음.

<표 6> 기존 연구에 사용된 문양 분석

문양 분류	빈도	%
식물문	112	58.3
동물문	29	15.1
자연문	7	3.7
기하학문	35	18.2
수·복 어문	9	4.7
합계	192	100

* 작품에 표현된 문양이 두 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 작품 당 2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양을 선정하였음.

4.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디자인 발상 과정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디자인 발상 과정은 앞서 분석방법에서 제시한바 있는 선행연구를 참조로 하여 문양의 형태 선정, 문양의 색채 배색, 문양의 표현기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문양의 형태 선정

디자인 발상과정에서 문양의 형태 선정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전중자, 조진숙은 ‘민화에 표현된 연꽃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발상’에서 민화에 나타난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연꽃문양의 형태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였다²⁶⁾고 하였으며, 황은영은 ‘조선시대 길상어문을 응용한 현대복식 디자인 연구’에서 문양을 축약, 양식화, 재구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원피스, 투피스 등에 디자인하였다²⁷⁾고 하였다. 전소연은 조선시대 ‘자수 베갯모 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에서 조선시대 자수 베갯모의 문양의 형태를 단순화, 추상화하여 제작함으로써 전통의

현대화를 재구성하였다²⁸⁾고 하였다. 이처럼 기존연구에서 문양의 형태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문양의 형태 선정은 '원형 그대로'와 '형태 변형'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연구유형에서 '원형 그대로'는 전통문양의 형태를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태 변형'은 문양의 형태를 간결화, 생략, 단순화 등의 방법으로 변형한 것을 말한다. 분석결과는 형태 변형이 70.8%로 원형 그대로(29.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8>.

이와 같이 전통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발상과정에서 문양의 형태 선정은 원형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생략하거나 간결하게 단순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양의 형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지나치면 현대미는 나타나지만 전통미는 감춰지게 된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변형의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표 8> 기존연구의 문양 형태 선정

형태 활용	빈도	%
원형 그대로	28	29.2
형태 변형	58	70.8
합계	96	100

2) 문양의 색채 배색

디자인 발상과정에서 문양의 색채 배색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김혜경은 한국의 전통문양인 단청문양의 주요색인 적, 청, 백, 흑, 황의 오방색을 중심으로 색상을 배색하여 한국적인 니트웨어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²⁹⁾고 하였으며 김미영, 김경희는 '길상문양을 응용한 자카드 직물 패션상품 개발 연구'에서 2007년 F/W 유행컬러 트렌드에 근거하여 배색하였다³⁰⁾고 하였다. 전중자, 조진숙은 '민화에 표현된 연꽃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발상'에서 현대적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현대화가인 피카소의 작품에 나타난 색상을 선택하여 배색하였다³¹⁾고 하였으며, 정진순은 '조선 청화백자에 표현된 사군자 문양을 이용한 직물디자인 개발 및 패션제품

제작'에서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여 명도는 중·고명도를 사용하여 맑은 이미지를, 고결한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저채도의 색을, 곧고 맑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채도의 색을 사용하였다³²⁾고 하였다. 서혜선은 '꽃담문양을 응용한 직물디자인 연구'에서 문양의 색상으로 아프리카의 민속적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민속적 색채와 한국의 전통적 형태의 결합으로 인한 고유의 특성과 독특함을 부가시키는 현대적인 직물디자인을 전개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더욱 발전된 직물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³³⁾고 하였다. 이처럼 기존연구에서 문양의 색채 배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국적 색상, 유행색상, 현대미술에 나타난 색상, 디자이너 컨셉에 의한 색상, 아프리카의 민속적 색상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연구유형에서 한국적 색상은 적, 청, 백, 흑, 황의 오방색 등 한국의 전통적인 색상을 말하며, 유행 색상은 시조의 컬러 트렌드를 반영한 것을 말한다. 현대미술에 나타난 색상은 현대미술 작품을 선정하여 그 작품에 나타난 색상을 추출하여 사용한 것을 말하며, 디자이너 컨셉에 의한 색상은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컨셉을 설정한 후 이에 따른 색상을 선정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민속적 색상은 아프리카의 민속적인 이미지의 색상을 말한다. 분석결과는 컨셉에 의한 색상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한국적 색상(13.5%), 유행색상(7.3%), 현대미술에 나타난 색상(2.1%), 아프리카의 민속적 색상(1.0%) 순으로 나타났다<표 9>.

이와 같이 전통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발상과정에서 문양의 색채 배색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컨셉을 설정한 후 이에 따른 색상을 선정하여 배색하는 방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문양의 표현기법

디자인 발상과정에서 문양의 표현기법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정진순은 연꽃문양을 이용한 '직물디자인 개발 및 문화상품 제작'에서 디자인한 패턴을 디지털 프린팅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 100%의 폰지에 출력하였다³⁴⁾고 하였으며, 김혜경은 '단청문양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에서 개발된 문양과

<표 9> 기존연구의 문양 색채 배색

색채 배색	빈도	%
한국적 색상	13	13.5
유행 색상	7	7.3
현대미술에 나타난 색상	2	2.1
디자이너 컨셉에 의한 색상	73	76.1
아프리카의 민속적 색상	1	1.0
합계	96	100

색상을 가지고 수직(손뜨개)이나 기계직(니트)의 방법을 이용하여 횡편으로 제작하였다³⁵⁾고 하였다. 이 미석은 ‘고구려 와당문양을 응용한 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문화상품제작에 염색기법으로 침염과 날염을 사용하였다³⁶⁾고 하였으며, 김병미는 ‘한국적 문양의 자카드 직물 개발에 의한 한스타일 교복 연구’에서 한스타일 교복 원단은 자카드 직기를 사용하여 직조하였다³⁷⁾고 하였다. 이명준은 ‘한국적 색채에 기초한 자수문양 및 드레스 디자인 개발’에서 겹수와 홀수, 그리고 이음수, 징금수, 자연의 자수 기법을 활용하여 원형문, 당초문, 격자문, 귀갑문, 물결문, 선문을 표현하여 드레스 디자인을 개발하였다³⁸⁾고 하였다. 이처럼 기존연구에서 문양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분석한 결과, 커팅, 아플리케, 프린팅, 자수, 니트, 금박, 퀼트, 자카드 직조, 브레이딩, 염색, 핸드페인팅, 펠트, 엠보싱 등 13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프린팅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자수(17.5%), 아플리케(10.8%), 니트(10.8%), 염색(8.7%), 커팅(6.8%), 자카드 직조(6.1%), 핸드페인팅(5.4%), 금박(2.7%), 퀼트(2.7%), 브레이딩(1.4%), 펠트(1.4%), 엠보싱(1.4%)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상으로 제작한 22편을 제외한 실물 제작의 74편이었다.

이와 같이 전통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을 발상하는 과정에서 문양의 표현기법은 분류된 13가지 기법 중에서 프린팅 기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디자인 발상 과정을 분석한 결과, 문양의 형태

<표 10> 기존연구의 문양 표현기법

문양 표현기법	빈도	%
커팅	10	6.8
아플리케	16	10.8
프린팅	36	24.3
자수	26	17.5
니트	16	10.8
금박	4	2.7
퀼트	4	2.7
자카드 직조	9	6.1
브레이딩	2	1.4
염색	13	8.7
핸드페인팅	8	5.4
펠트	2	1.4
엠보싱	2	1.4
합계	148	100

* 작품에 표현된 기법이 두 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 작품 당 2점을 기준으로 하였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기법으로 선정하였음.

선정은 전통문양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생략하거나 간결하게 단순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문양의 색채 배색은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컨셉을 설정한 후 이에 따른 색채를 배색하는 방법이, 문양의 표현기법은 프린팅 기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통문양은 문양의 형태 선정, 문양의 색채 배색, 문양의 표현기법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와 시각적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으로 재창조됨을 알 수 있다.

5. 디자인 제시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최종 결과물인 디자인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문명옥은 ‘꽃문을 응용한 의상작품 제작에 관한 연구’에서 사찰의 꽃문 6개를 선택하여 원피스, 재킷, 블라우스 등 총 6점의 의상을 직접 제작하였다³⁹⁾고 하였으며, 기희숙, 서미아는 니트 캐드시스템(Knit CAD System)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후 도식화에 시

물레이션과 맵핑(Mapping) 작업으로 디자인을 완성하였다⁴⁰⁾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디자인 제시 방법을 분석한 결과, 실물제작과 가상제작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연구유형에서 실물제작은 직물, 니트 등을 소재로 실제로 제작하여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상제작은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CAD System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착장 시뮬레이션 또는 3D 맵핑 등으로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결과는 실물제작이 77.1%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상제작(22.9%)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1>.

이와 같이 최종 결과물인 디자인 제시는 컴퓨터에 의한 가상제작보다 실물제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1> 기존연구의 디자인 제시

디자인 제시	빈도	%
실물 제작	74	77.1%
가상 제작	22	22.9%
합계	96	100.0

V. 결론

21세기는 정보화, 개방화 시대로 글로벌리즘(glo-culism)화 되어가고 있으며, 문화와 생활양식이 범세계적으로 일원화되는 가운데 자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⁴¹⁾ 다양한 문화자원 중 전통문양은 다양하고 독특한 조형미로 인하여 응용할 수 있는 폭이 넓고, 현대적인 디자인과도 접목시켜 활용하기에 좋은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양의 디자인적 중요성을 깨닫고 전통문양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기존연구들의 연구경향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1년간 국내의 의류학 관련 8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과 석·박사 논문 총 96편을 선정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들의 연구유형을 연구주제에 따라 분류한 결과,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 직물디자인에 관한 연구,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연구, 복합 디자인에 관한 연구 등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복합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2개 이상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칭을 복합디자인으로 명명하여 분류에 추가하였다. 분석결과는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직물디자인에 관한 연구,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연구, 복합 디자인에 관한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별 디자인을 살펴보면,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의상디자인은 정장류(58.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니트웨어, 케주얼, 웨딩드레스, 유니폼, 속옷, 수영복, 생활한복, 모피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상품 디자인은 스카프, 넥타이, 가방 등 패션소품(78.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주방용품, 인테리어용품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주제에 따라 분류된 논문을 연대별로 재분류한 결과,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점진적인 증가나 감소보다는 격년제로 연구의 증가와 감소가 엇갈려 나타났으며, 직물디자인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높게 나타난 해에는 직물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적게 나타나고, 직물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높게 나타난 해에는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적게 나타나는 등 서로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의상디자인이나 직물디자인에 비해 매우 적게 연구되었으나 2008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현재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와 기타 상품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직물디자인에 관한 연구와 복합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기존연구에서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된 문양을 분석한 결과, 식물문(58.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기하학문, 동물문, 수복어문, 자연문 순으로 나타났다. 식물문은 꽃과 나무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형태가 아름다운 것은 물론 현대에서도 친

속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식물문에서는 연화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꽃문, 당초문, 모란문, 매화문, 보상화문, 사군자문, 석류문, 국화문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통문양의 활용에 대한 디자인 발상 과정은 선행연구를 참조로 하여 문양의 형태 선정, 문양의 색채 배색, 문양의 표현기법으로 분류하였다. 기존연구를 분석한 결과, 문양의 형태 선정은 원형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생략, 단순화 방법으로 형태를 변형(70.8%)하여 사용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문양의 색채 배색은 디자이너 컨셉에 따른 색채 배색(76.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한국적 색상, 유행색상, 현대미술에 나타난 색상, 아프리카의 민속적 색상 순으로 나타났다. 문양의 표현기법은 프린팅(24.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자수, 아플리케, 니트, 염색, 커팅, 자카드 직조, 핸드페인팅, 금박, 퀼트, 펠트, 엠보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통문양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발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양의 형태 선정은 생략, 단순화 등의 형태 변형, 문양의 색채 배색은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컨셉을 설정한 후 이에 따른 색채 배색, 문양의 표현기법은 프린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기존연구에서 최종 결과물인 디자인을 제시하는 방법은 실물제작(77.1%)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상제작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기존연구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연구주제가 주로 의상디자인 분야에 치우쳤다는 점,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된 문양이 주로 식물문, 기하문, 동물문에 치우쳤다는 점, 그리고 문양의 형태 선정에서 변형이 70.8%로 원형 그대로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자한다. 그 이유는 의상 뿐 아니라 한국 의미를 홍보할 수 있는 숙박, 요식업계의 실내인테리어용품이나 주방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미를 표현 할 수 있는 상품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고, 전통문양은 활용방법에 따라 현대적 감각의 독창적인 모티브로 전개할 수 있는 무한한 디자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문, 수북어문 등도 다양하게 연구되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디자인 발상과정에서 문양의 형태를 지나치게 변형하여 사용 할 경우, 문화적 전통성의 인지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변형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즉, 한 나라의 문화적 전통성을 간직한 이미지가 말로 시각적으로 그 나라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 미의식을 근거로 현대적 감각과 트렌드적 요소를 접목한 국제적 경향에 맞추어 유연하게 융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전통문양을 활용한 기존연구들의 연구 경향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초적 연구는 앞으로의 전통문양의 활용에 관한 디자인 연구에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의류학 관련분야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일반화 하는 것을 제한한다. 후속연구로는 비교적 적게 연구된 자연문이나 수북어문 등을 활용한 디자인 연구를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 1) 박미령, 김상률(2006), “유용생물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료의 개발 및 문화상품 전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6), p.665.
- 2) 김미영, 김경희(2008), “길상문양을 응용한 자카드 직물 패션상품 개발연구”, *복식문화연구*, 16(4), p.722.
- 3) 이소진(2006),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문양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
- 4) 정진순(2004), “연꽃문양을 이용한 직물디자인 개발 및 문화상품제작(Ⅰ)”,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2), p.142.
- 5) 정진순(2004), “연꽃문양을 이용한 직물디자인 개발 및 문화상품제작(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4), p.421.
- 6) 김종순, 장정대(2007), “반구대 암각화를 응용한 스카프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9(3), p.262.
- 7) 이유리, 이미영(2007), “패션마케팅분야의 4년제

- 교육과정과 복식지 동향비교", *복식*, 57(5), pp.123-139.
- 8) 백경진, 김미영(2004), "화장에 관한 기존연구 유형의 분석", *복식문화연구*, 12(1), pp.182-198.
 - 9) 김미영, 김경희(2008), op.cit., p.724.
 - 10) 현선희, 배수정(2007), "패션문화상품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한국전통문양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6), pp.987.
 - 11) 전중자, 조진숙(2010), "민화에 표현된 연꽃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발상", *복식문화연구*, 18(4), p.745.
 - 12) 이수정(2004), "조선후기 수보의 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9.
 - 13) 정선영(2010), "한국단청의 꽃문양을 응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전보라(2010), "전통 창살문양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한수경(2005), "고려청자의 당초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광경택(2008), "민화의 현대적 재구성을 통한 디지털 섬유패션 제품디자인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이성실(2005), "한국의 미의식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한 직물디자인 연구 -떡살문양을 응용한 식탁보 디자인-",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최은승(2000), "고구려 고분벽화의 연꽃문양을 응용한 직물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김대의(2010), "한국 전통문양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정승은(2008), "당초문양을 응용한 현대패션 구두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1) 최서연(2006), "사찰건축의 창살문양을 응용한 액세서리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박우미, 나우정(2002), "전통문양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요식업계의 유니폼 및 소품디자인 개발", *복식*, 52(2), p.85.
 - 23) 최승연, 이미숙, 신윤숙(2006), "전통문화상품에 나타난 문양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4(1), pp.103-104.
 - 24) 최재영(2006), "보상화문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4-65.
 - 25) 구세이(2001), "한국전통 태극문양을 응용한 Cap 디자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1.
 - 26) 전중자, 조진숙(2010), op. cit., p.745.
 - 27) 황은영(2001), "조선시대 길상어문을 응용한 현대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1.
 - 28) 전소연(2006), "조선시대 자수베갯모 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0.
 - 29) 김혜경, 이지영, 이해성(2004), "단청문양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4), p.415.
 - 30) 김미영, 김경희 op.cit., p.723.
 - 31) 전중자, 조진숙, op.cit., p.748.
 - 32) 정진순(2009), "조선청화백자에 표현된 사군자 문양을 이용한 직물디자인 개발 및 패션제품제작",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2), p.247.
 - 33) 서혜선(2003), "꽃담문양을 응용한 직물디자인 연구-다문화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5.
 - 34) 정진순, op.cit., p.422.
 - 35) 김혜경, 이지영, 이해성, op.cit., p.417.
 - 36) 이미석(2006), "고구려 와당문양을 응용한 문화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56(6), p.90.
 - 37) 김병미(2009), "한국적 문양의 자카드직물 개발에 의한 한스타일 교복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1), p.128.
 - 38) 이명준(2009), "한국적 색채에 기초한 자수문양

- 및 드레스 디자인개발”,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7.
- 39) 문명옥(2007), "꽃문을 응용한 의상 작품 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9(3), p.274.
- 40) 기희숙, 서미아(2009), "전통문양을 응용한 여성복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2), p.50.
- 41) 김미영, 김경희, op. cit., p.722.

접수일(2011년 6월 22일),
수정일(1차 : 2011년 8월 30일, 2차 : 10월 7일),
게재확정일(2011년 10월 10일)